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성공하는 거사란 이를 준비하는 주도 그룹들의 심사숙고와 치밀한 분석,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결심한 것들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과감한 실천력이 뒤따라야 좋은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다.

_작은 개울로 시작하였으나

김 부 겸_ 서울대 정치학과 76학번.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국민통합추진위원회(통추) 조직부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경기 · 군포, 원내수석부대표)(현)

벌써 30년인가!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다 못해 말살하려던 거대한 권력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향한 최후의 일격, 긴급조치9호를 가한 그날이…. 그 시절은 왜 모든 일이 그렇게도 신이 나지 않았던지! 막걸리와 쓴 소주는 왜 그리도 마시고 싶고 매일매일은 왜 그리도 힘겨웠던지!

시인이나 소설가의 펜을 빌리면 그래도 그럴싸한 그림이 그려질 텐데 1970년대의 어둡던 시절, 유신과 긴급조치시대를 떠올리면 아직도 우울하기만 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숨이 막혔던 긴급조치시대의 굴곡진 모습이야말로 이제 똑똑히 역사에 새겨두어야 하리라. 그리고 어떠한 힘, 어떠한 권력도 인간의 생각과 말을 묶어 둘 수는 없으며, 어떤 억압의 쇠사슬도 반드시 인간들의 목소리와 행동에 의해 부서지고 만다는 분명한 역사적 교훈 또한 함께….

긴급조치9호라는 게 스스로 절대자와 같아서 유신헌법은 커녕 그 조치 자체를 직접 비판하거나 비판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 조차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게 되어 있었다. 지금처럼 인터넷 매체의 무한한 언론 자유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적나라한 국

가폭력이었다. 마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생존 자체가 굴욕이었듯이 그 시대에 청춘을 보낸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화인(火印)처럼 안고 살아 온 것이다. 오늘도 수유리 4.19 국립묘지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광주 5.18 묘역에는 추모객들이 줄을 잇듯, 우리들 청춘의 4월과 5월, 그리고 6월은 여전히 함성과 눈물과 환희로 여울져 있다.

나의 70년대는 72년 10월 유신헌법 선포로부터 시작되었다.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이 조금 이상해졌다는 정도의 인식과 영어 선생님이 'October Innovation' 이란 단어를 반드시 외우라고 하신 것밖에는 별 느낌이 없었다. 그러다 고 3이 되니까 긴급조치라는 게 꽝꽝 터지더니 '민청학련' 이라는 단체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수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잡혀갔다며 사회가 온통 어수선하였다.

74년 말이 되자 장준하, 백기완 선생 등이 '개헌 청원 1백만 서명운동' 을 시작하고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전국을 다니면서 개헌 현판식을 열려고 하다가 대구에서 상이군경들에게 포위되는 일도 벌어졌다. 동아일보에는 백지광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동아 광고 탄압사태' 는 입시를 앞둔 내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3년 개근과 우등의 모범생을 얼치기 민주주의자로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었다.

대학입시를 치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친구 녀석들의 호주머니를 몽땅 털어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사 사옥의 1층 광고국을 찾아가 조그만 광고면을 사서 '언론 자유를 향한 구국의 횃불이여… ' 라고 문구를 싣기도 하고 잡지 〈신동아〉를 사 보기도 했다.

75학번으로 입학한 성균관대학교에선 처음으로 학생시위에 참가했다. 1학년 때라 남들처럼 나 역시 고시 준비를 막 시작할 찰나였는데 긴급조치9호가 터지고 광기에 찬 세상은 점점 설익은 의식과 양심에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막연한 저항심을 발동시켰다. 고민 끝에 고시 공부를 걷어치우고 재수를 하면서 점점 운동권(?)으로의 길을 한 걸음씩 밟아 나갔다.

76년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하면서 '농업경제학회(농경)' 에 가입하게 되었다. 수업이 끝난 후에 빈 강의실을 다니며 선배들과 함께 〈전환시대의 논리〉, 〈신동엽 시집〉, 〈민족주의론〉, 〈노동운동사〉, 〈제3세계 민중운동〉, 〈민중과 지식인〉 등의 책을 학습하고 토론하노라면 캄캄하고 암울하던 세상이 훤히 보이면서 용기와 투지로 가슴이 벅차 오르곤 했다. 그러나

캠퍼스 곳곳에는 늘 사복경찰과 머리가 짧은 젊은이들이 포진해 있었고 학생과 직원들의 감시의 눈길은 날카로웠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이티' 라는 카드놀이로 교정 잔디밭에 모여 시간을 죽이곤 했다. 미팅도 몇번 나갔다가 예쁜 여학생을 앉혀놓고 투박한 사투리로 '민중' '역사' 가 어떻고 떠들다가 퇴짜맞기 일쑤였고, 수업시간에는 엉뚱한 질문으로 교수님들께 영락없이 찍히기 시작했다.

76년 12월 8일, 동양사개론 학기말고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5동 앞에서 박석운, 이범영, 백계문 선배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사복경찰 및 교수들과의 몸싸움, 전투 경찰들의 신속한 출동…. 그날 눈이 내리는 기숙사에서 한없이 슬퍼하며 울었다. 77년 3월이 되니 학교 곳곳에는 무엇인가 금방 터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먼저 김천우, 박찬우, 양춘승 선배가 잡혀가고 얼마 후엔 박종렬, 김재명, 오세범, 정의헌 선배가 뒤를 이었다.

그 해 1학기는 문래동 남부지원 법정을 오가며 마치 순교자처럼 당당하던 선배들을 지켜보며 박수치고 격려하다가 학교로 돌아와서는 술 먹고 토론하면서 날을 지샜다. "민중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식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화두는 우리들의 머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일영 장자원이나 양수리, 대성리에 학회 MT를 가거나 충북 중원, 충남 서산, 경남 거창 등지로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도 늘 '도덕적 결단, 민중적 삶, 지식인의 허위의식' 같은, 삶의 자세를 둘러싼 고민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일요일마다 시내 을지로 입구에 있는 '향린교회' 에 나가면서 대학부에서 김병곤, 장덕주, 박용훈, 성해용, 홍영진, 김창기, 안준섭, 박노해 같은 선배들을 만나 학습을 했고, 대학부를 지도하던 안병무 선생, 김경재 교수, 정연주 선생(현 KBS 사장)의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신학적 강의도 열심히 들었다.

77년 2학기는 술렁이고 있었다. 10월 초 사회대 정치학과, 외교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신문학과 2학년생들이 함께 들어가던 교련시간에 교관들과의 다툼에서 시작된 작은 항의 시위가 불씨를 키우더니 10월 7일 26동에서 개최된 사회학과 주최 심포지엄장에서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자연스럽게 모인 600여 명의 학생들을 놓고 지레 겁먹은 학교 측이 행사를 연기시키려 하자 이에 반발하여 시위로 발전하였다. 26동 강의실 안팎에서 벌어진 시위는 말 그대로 전쟁이었다. 경찰관 출동, 최루탄 발사, 400여 명 강제 연행, 주동 학생 구

속, 서울대 무기 휴업….

주동자로 구속된 학생들 대부분이 훗날 대학교수가 된 것을 보면 이들이야말로 모범학생들이었지만 당국의 옹졸하고 비열한 처사가 평범한 학생을 투사로 만들어가던 어처구니없는 시대이기도 했다.

10월 말 휴업이 풀리고 학교에 돌아오니 여기저기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나. 10월 7일 희생자들을 위해서도 투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팀을 짜자"는 요지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경찰이 무슨 낌새를 맡았는지 당시 공군 소령으로 공군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부랴부랴 학교로 찾아와 나에게 몇 차례 다짐을 받고 다시 돌아가시곤 하는 날이 계속 되었다.

마침내 11월 11일 점심시간부터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직전에 내게 주어진 임무는 경찰이나 교직원들과 몸싸움을 해서라도 도서관 통로를 확보하여 시위대의 도서관 진입이 가능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도서관 안내 팻말을 꽉 잡고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시위대가 밀어닥쳤다. 김경택, 권형택, 문성훈, 양기운, 장기영, 연성만 선배가 주동한 데모대가 도서관으로 밀고 들어와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바깥에 모인 수천 명의 학생들을 장기간 지휘하며 시위를 벌일 수 있게 되었다. 최루가스와 돌멩이가 뒤범벅이 된 대학 교정, 매캐한 최루가스 냄새 속에서 경찰 닭장차에 실려 관악경찰서로 연행되면서 어둠 속에 쌓인 캠퍼스를 보는 순간 나는 이제 더이상 편안한 인생을 살기 글렀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같이 연행되는 여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지만 뭔가 울컥거렸다.

그날은 마침 이리역에서 화약 열차가 폭발하는 참사가 일어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박 대통령은 환갑을 맞는 날이었다던가! 덕분에 경찰서에서 더 세게 혼이 났지만….

뒤이어 며칠간 계속된 조사 끝에 주동자 외에 이철국, 신희백, 나, 여균동, 진재학이 극렬 가담자로 분류되어 함께 구속되었다. 영등포 구치소로 송치되어 넘어가던 날, 어머니는 저 멀리서 한참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셨다. 직업군인인 아버지의 운명과 2대 독자인 철없는 아들의 장래가 암담해 보였는지 아무 말씀도 않으신 채….

77년 11월부터 78년 서울구치소로 이감할 때까지 수감되었던 고척동 영등포구치소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곳이다. 학생운동의 선배들 외에 종교인, 출판인 등 지식인과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떠들던 밑바닥 삶을 살아가던 민중들을 만나게 되었다.

단식투쟁을 하는 과정에서의 고통과 개인적 갈등은 훌륭한 단련의 시간이었고 모처럼 접한 문학, 역사, 성경, 철학 서적들은 적지 않은 독서의 기쁨을 주었다. 짧은 운동 시간, 간간이 하는 통방, 이부자리 일광 소독, 창밖 마당가에 피는 작은 꽃, 사각 창틀에 갇혀서 보는 푸른 하늘, 가끔씩 비추는 고요한 달, 일 주일에 한 번씩 뵙는 어머니… 1심 최후 진술을 앞두고서 선배들이 시위 때 작성하여 뿌린 "어두운 시대에 사는 학우여! 모입시다…"로 시작되는 '민주구국투쟁선언'을 다 외우고 프랑스 시인 폴 엘뤼아르의 시 '자유'를 몇 번이나 읽었다.

당시 〈샘터〉사 오증자 주간이 매월 한 편씩 그의 시들을 소개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훗날 김지하 시인이 발표한 '타는 목마름으로'만큼이나 어떤 처절한 영감을 주는 시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고 78년 8월경부터 안양교도소에서 김태경, 김영현, 문성훈, 유재현, 박홍렬 선배들과 김거성, 오성광, 최상일, 여균동 등과 함께 지내면서 운동도 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냈다. 가끔씩 재소자 처우개선 문제로 집단행동을 해서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먼저 와 계시던 이해학 목사님을 놀리기도 하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소금물은 Nacl이라는 분자 상태로 용해되어 있는가? Na+, Cl-이라는 이온 상태로 되어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안양교도소에 다시 수감되었을 때도 끝이 나지 않았다. 아마도 긴급조치 시대의 순박하고 열정적이던 청년들의 우정과 사랑이 꺼지지 않는 한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

요즈음 나는 경기도 군포시에 산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안양교도소 앞을 지나간다. 25년 전 운동장에서 문틈 사이로 내다보곤 하던 넓은 들판은 아파트촌으로 변해 버렸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변 풍경이 변한 만큼이나 나 자신도 변했을까? 어느새 게을러지고 교만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석방된 뒤로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서러움을 당했을 때 나는 그때의 기억이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우리 긴급조치 시대의 꿈과 사랑은 아직도 그곳에 단단히 서있다. 소리없이 그리고 화려하지 않게.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라는 막심 고리키의 소설이 80년대 후반에 번역 출판돼 나

온 걸로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 때만 해도 소위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이라는 걸 접해볼 수 없었다. 강철은 두드려 맞으면서 단련된다. 나는 가끔씩 우리가 그렇게 '단련' 되었다고 생각한다.

긴급조치 시대의 혹독한 경험들이 숱한 얼뜨기 시골 청년들을 민주주의 투사로 단련시켜 준 것 같다. 많은 선배, 동료, 후배들이 그러한 고뇌와 지독한 경험을 통하여 강건해지고 넉넉해졌으리라고 생각한다. 80년 중반 이후 사회 변혁론을 직접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하려 했던 세대들과 달리 우리들 긴급조치 세대들은 그렇게 모두 어설프게, 수공업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고민들이 인생 전체를 걸고 한 고민들이었기에 그 뒤에 어느 분야로 나갔든지 그 때의 올곧은 단심과 원초적인 정의감은 간직하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동시대 대중들을 지도(?)하는 영광을 맛보지는 못했고, 이름도 명예도 남기지 못했지만 그저 작은 개울로 시작하였으나 마침내 모여서 큰 강물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여러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실 긴급조치 시대의 선배님들께,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제정구, 정문화, 김병곤, 이범영 선배님 등 그리고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노동, 농민, 빈민운동의 선구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이 글을 바친다.

_여명의 '79년, 서울대 9.11 데모

김 종 채_ 서울대 사회학과 76학번.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베를린 훔볼트대학 수학,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던 날

그 날 나는 영등포 구치소에 있었다. 9동 하 독거 9방, 내가 읽고 있던 책은 강제언의 〈조선 근대사연구(일어본)〉였는데, 공교롭게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오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쏘아 죽인 후, "나는 그가 동양평화의 공적이어서 쏘았노라"고 한 것이 1909년 10월 26일이라는 부분을 읽고 있었다.

10월 27일 아침 영등포 구치소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는 조금 달랐다. 교도관들은 보통 회색의 근무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날은 국방색의 군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아침 11시경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다. 보통 1주일에 두 번 오시고 이번 주에는 벌써 두 번 다녀가셨는데 또 오신 것이다. 웬일일까? 하지만 하루 한 번 운동할 때나 면회 때가 아니면 좁은 방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 나로서는 일단 좋은 일이다. 10분 간의 면회시간 동안 어머니와 누나는 별것도 아닌 얘기를 했고, 나는 팔굽혀펴기를 안에서 매일 백 번씩 하므로 건강이 좋다는 얘기만 했었다. 그런데 입회중인 교도관이 그런 얘기를 받아쓰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쪽지를 하나 펼쳐서 칸막이 유리창으로 보여주셨다. '박대통령 암살' 그 여섯 글자는